

1980년대 어린 시절 산골에서 자란 나는 메뚜기를 잡아 튀겨 먹을 정도로 거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 4학년 때 광주로 이사를 와서는 뭔가 어리바리하고 소심해졌다. 언제나 나에게 따뜻했던 부모님과 함께 자란 4 형제, 넉넉지 않았던 형편의 부모님은 어린 내가 보기도 안쓰러워 보였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직업이 확실히 보장되는 대학에 꼭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시험과 등수에 연연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기를 쓰고 공부를 해서인지 결론적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가서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현재 기성세대가 되었고 어쩌다 보니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작고 귀여운 아이들은 금세 자라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털어놓는다. 덩치 큰 아이들이지만 부모의 말은 여전히 나침반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나 역시 고민하게 된다.

2021년 여전히 한국 사회는 경쟁 사회이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공부로 성공을 경험한 부모들은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덩달아 좋다는 학원을 뱅뱅이 돌리며 차에서 도시락을 싸서 저녁을 먹이면서까지 공부를 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이 짜준 시간표대로 움직이며 하는 공부가 진정한 공부일까?

“길을 잃어봐야 자신만의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비긴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추천사

1

어게인)
 “산을 올라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아름다운 풍광을 음미하며 오르는 방법과 목적지에 가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이 오르는 방법이다. 우리 자신이 목적과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삶에서 선물하는 것을 지나치기 일쑤이다. 삶은 그 여정들로 이루어진다. 도중의 난관을 피해서 둘러 목적지에 도착하느라 마음 급한 사람과 과정에서 발견하는 신비와 뜻밖의 경험에서 순수한 기쁨을 얻는다. 여정의 매 순간을 즐기고 감동하고 기뻐하면서.” (류시화: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지금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과 비교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색깔로 행복을 만끽하는 그런 삶, 삶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얻어가며 단단히 자기 삶의 뿌리를 내리는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청소년 시기는 중요하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배움을 얻어야 하는 시기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청소년은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 루나와 리안의 에세이를 통해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생기 넘치는 눈과 표정으로 인사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자기만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정말이지 멋진 사람 두 명을 만난 느낌이 들었기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추천사

2

때문이다.
 루나의 에세이는 가족과 함께 겪은 여러 에피소드를 재밌게 풀어내며 그 속에서 귀한 삶의 가치를 찾는 여정이 담겨 있다.〈가족여행〉이야기는 굉장한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순간의 두려움과 망설임을 나누는 모녀의 이야기는 가족이 있기에 받을 수 있는 위안을 주었다.〈채소 수프, 베이킹소다맛 케이크〉역시 생생한 꿈과 엉뚱 발랄한 동생의 요리에 대한 일화를 연결하여 동생의 상식에서 벗어난 요리지만 결론적으로는 맛있다고 평가하는 루나의 동생에 대한 애정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사랑스러웠다.〈아빠와 개구리 고기〉이야기를 통해 어릴 적 개구리를 잡아먹을 만큼의 소년이 자라서 채식주의자가 된 이야기는 환경과 기후 위기를 생각하는 루나의 따스한 마음이 느껴졌다.〈네 살 아기의 영상〉은 동생의 귀여운 영상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동생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담하게 전한다.

리안의 에세이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다.〈이야기꾼〉은 결혼식장에서 본 난감한 상황에 부딪친 어린이를 공간을 이동하면서 지켜본다. 그러다 마침내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공간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무언가의 느낌으로 풀어낸다. 예를 들어 바람의 이야기처럼.〈열정 포토그래퍼〉는 엄마에게 걸으로는 무뚝뚝하게 대하지만 마음속은 어릴 적 순수함을 간직한 채 여전히 엄마에 관한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추천사

3

호기심을 이야기한다.〈듣고 싶은 말〉에서는 인정욕구를 잘 다스리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인정욕구는 누구에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아끼는 사진〉은 오래된 사진을 보면 그때 아름다웠던 순간을 추억하고, 잠시나마 그때의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리안은 조금 다른 시선에서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전한다.

루나와 리안의 에세이!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가뭄에도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루나와 리안은 분명 아름다운 풍광을 음미하며 산을 오르는 사람처럼 삶의 여유와 감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듯하다. 루나와 리안의 글은 앞으로도 찬란히 빛날 것이라고 확신하며 추천의 글을 갈무리하겠다.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추천사

4

리안

특별한 이유 없이 시베리안 허스키를 좋아했다.

아마 그 모양새가 멋졌던 듯하다.

리안은 단지 어감이 좋아서 따낸 이름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좋아하는 것만을 좇으며 살고 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가장 게으른 생활방식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주눅이 든다.

그래도 나의 생활방식이 좋다.

세상 눈치 안 보고 온전히 나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언제나 바라고 있다.

이야기꾼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리안

9

오늘은 결혼식장에 들어가 볼 거예요. 사람이 정말 많군요. 누군가 멈춰서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우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볼까요?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더라도 말이에요.

저기 어떤 여자아이가 있네요. 네? 어디냐고요? 저기 보세요. 키가 작고 수수한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있잖아요. 인파 더미 속에서 혼자 있으니카 아주 눈에 띌 거예요.

저 아이는 왜 혼자 있는 걸까요?
앗, 아이가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네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장난감 가게라도 찾는 걸까요? 아직 우리로서는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니 따라가 보아요.

아이가 두리번거리면서 계속 걸어가네요. 앗, 아이가 멈췄어요. 뭔가를 발견한 걸까요?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봐요. 뒤돌아서 다시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봐요. 아직 원하는 걸 찾지 못한 모양이에요.

어, 아이가 멈췄어요. 무슨 일일까요? 가까이 다가가서 볼까요?

엇, 아가 왜 그러니? 아이의 눈이 작아졌어요. 곧이어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젠 울기 시작했어요. 저런, 우린 달래줄 수도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리안

10

없는데 어떡하죠?
응? 저기 아주머니들이 다가오시네요. 그래요, 어서 와서 이 아이 좀 달래주세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너무 서글프게 울고 있어서 제 마음이 다 찢어지네요. 아주머니들이 아이를 달래는 데 성공했어요.

어라?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는 거죠? 아는 사이였던 걸까요?

저긴 파출소예요. 그렇군요. 파출소에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였어요.

저기 봐요. 아주머니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긴 아주머니들도 바쁘실 텐데 언제까지 아이 옆에 붙어 있을 순 없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아이를 지켜보도록 해요.

파출소에 들어가 보아요. 어디 보자, 아이가 의자에 앉아있네요. 아이가 졸리는지 눈을 자꾸 깜빡거리요. 의자에 옆으로 누워서 팔베개하고 잠들었어요. 저런, 많이 피곤했나 봐요. 하긴 그렇게나 울어댔으니 당연하겠죠?

경찰관님이 신문지를 들고 아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이 옆에서 신문이라도 읽으려는 걸까요?

아니었어요. 잠든 아이에게 덮어주려는 거였어요. 자상하기도 하셔라.

그나저나 아이는 누구와 떨어진 걸까요? 과연 누가 아이를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리안

11

찾으러 올까요? 아이가 무사히 돌아갈 때까지 지켜보도록 해요.

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이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과 떨어진 게 아니었… 하아아암. 이런, 미안해요. 너무 오래 말을 했더니 저도 아이처럼 졸음이 쏟아, 지, 네요. 우리도 잠시 눈을 붙이죠.

(한 시간 뒤)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어른들이 소란스럽게 들이닥쳤어요. 무슨 일일까요?

어른들과 경찰관님이 얘기를 나누다 아이에게 다가가요. 아이의 가족일까요?

경찰관님이 아이를 깨워요. 어른들이 아이를 뚫어지라 쳐다봐요.

아이는 아직 졸리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는 간신히 일어나 앉았어요.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어른을 보더니 다시 울어요. 엄마로 보이는 어른이 아이를 꼭 안아주네요. 아마도 저분들이 아이의 가족이 맞나봐요.

아이가 가족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리안

12

열정 포토그래퍼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리안

13

엄마는 여행을 갈 때면 늘 사진을 찍는다. 풍경 사진도 있지만 내 사진도 있다. 엄마는 항상 내 사진을 찍으려 한다.

엄마는 나에게 이쪽을 보고 자세를 취해보라고 한다. 나는 엄마가 내 사진을 찍으려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엄마의 손을 썩이기 싫은 딸로서 그 말을 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자세를 취할지 고민해본다. 그러다가도 성장기의 부끄러움이 밀려와 못 들은 척 무시한다. 그러면 엄마는 다시 한번 '여기 봐봐'라고 한다. 사진 찍히고 싶지 않은 나는 하늘을 보거나 먼 산과 바다를 본다. 한두 번 거절 당한 게 아닌 엄마는 '이쪽 좀 보지'라며 한탄한다.

엄마의 한숨 소리에 죄책감이 밀려들지만, 나는 여전히 엄마의 카메라를 보지 않는다. 그제야 포기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풍경 사진을 찍는다.

엄마의 휴대폰 카메라를 향해 제대로 자세를 취해본 적이 언제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예전에 사촌 동생들이 더 어렸을 때 나도 동생들 사진을 많이 찍었다. 귀여워서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었다. 하지만 다 큰 성인을 찍고 싶어 하는 엄마의 마음은 아직도 모르겠다.

이젠 커버려서 사진 찍기를 거부하는 딸을 둔 엄마의 갤러리에는 나의 어떤 모습이 담겨있을까.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리안

1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18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리안

0

듣고 싶은 말



13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4

자신은 듣고 싶지 않은 험한 말을 남에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남에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은 거칠고 배려가 없는 걸까요?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은 상냥한 사람일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은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사람,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은 남의 따뜻한 말이 간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하지만 모든 사람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없어요. 저는 듣고 싶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나쁜 말 한마디 못하는 유약한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나쁜 말을 하고 싶어도 내뱉지를 못해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어렵듯이 알고 있습니다.

리

따뜻한 말로 위로받고 싶다가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신뢰의 말을 듣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인제 그만 편해지고 싶다'라는 마음과 '어서 한 사람 몫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충돌하고 있죠.

1

듣고 싶은 말을 알았다면 이제 그걸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절친이 없어 고민을 이야기할 친구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4

매체에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스스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진정한 응원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로 생각해요. 하지만 전 단순한 음성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겉대기뿐인 말이기 때문에 단순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런 경우엔 속이 꼭 찬 다른 것이 필요해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나의 개으른 점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이것저것 밀린 집안일부터 시작해요. 집안일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요. 하나하나 깨끗해지는 집안을 보고 뿌듯해지죠.

리

어제저녁 피곤해서 내버려 둔 짐들을 정리하기도 해보아요. 온종일 반쯤 자고 있던 상태였는데, 정리를 시작하면 그제야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2

아직 세수도 안했다면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해요. 오후 6시까지 더럽게 널브러져 있다가 씻어요. 몸이 한결 상쾌해지고 나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미물 정도로 두러워할 일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사회에서 잘 살아갈지 걱정된다면 당장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해보아요.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면 상상만큼 상대가 무섭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저 사람을 만나기 싫어 회피했을 뿐이에요. 피할 명분이 없어 핑계 대다 보니 무서워졌던 거죠.

13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4

일단 시작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구제 불능은 아닌 사람이에요. 그제야 생각을 멈추고 안심해요. 무언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말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안심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의견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자신이 한 사람 몫을 해내고 있다는 확신과 안심이 필요해서 항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해요. '사람은 누군가의 기억을 통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날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면 난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기억해요. 그러므로 남의 인정을 더욱 갈구하게 되는 거죠.

리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 같아서 남의 인정은 달콤해요. 실수하는 일도 있지만, 그 달콤함을 다시 맛보려고 계속 노력하죠. 그러다 보면 인정받기 위해서 좋아하지도 않고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정신을 차리면 '내가 뭘 하는 거지'라며 허무함이 들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너무 창피해져요.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이지요.

3

인정받기 위해서 범죄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우린 남의 인정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선 담배나 술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맛있고 기분도 좋아지지만, 자제하지 않으면 사고를 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 큰일이 나죠.

13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4

그래도 적당히 즐기면 삶이 한결 편하고 즐거워지는 달콤한 과일이지요. 전혀 안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도 건강에 좋지 않은 과일 같죠. 듣고 싶은 말을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 경우도 있지만, 책에서 읽거나 TV 같은 매체에서 듣는 경우도 있어요. 꼭 책이나 매체에서만 듣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노래에서, 시에서, SNS에서, 좋아하는 연예인에게서, 길 가다 스치듯 본 글에서조차 들을 수 있죠.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인간관계가 좁은 저는 책이나 매체에서 더 많이 들었죠.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 말은 생각이 많아져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 만큼 매체에서 듣는 말은 더욱 편하고 안심이 돼요.

리

다양한 곳에서 따뜻한 말을 들으면 나도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내 말을 듣고 누군가도 잠시나마 안심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4

그런 생각으로 가수, 작가, 시인, 상담사가 된 사람들이 있겠죠. 또 그들에게서 위로받고 가슴 따뜻해진 이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죠. '어떤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따뜻한 말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건 정말 아름다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13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4

그래도 적당히 즐기면 삶이 한결 편하고 즐거워지는 달콤한 과일 같죠. 듣고 싶은 말을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 경우도 있지만, 책에서 읽거나 TV 같은 매체에서 듣는 경우도 있어요. 꼭 책이나 매체에서만 듣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노래에서, 시에서, SNS에서, 좋아하는 연예인에게서, 길 가다 스치듯 본 글에서조차 들을 수 있죠.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인간관계가 좁은 저는 책이나 매체에서 더 많이 들었죠.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 말은 생각이 많아져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 만큼 매체에서 듣는 말은 더욱 편하고 안심이 돼요.

리

다양한 곳에서 따뜻한 말을 들으면 나도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내 말을 듣고 누군가도 잠시나마 안심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5

그런 생각으로 가수, 작가, 시인, 상담사가 된 사람들이 있겠죠. 또 그들에게서 위로받고 가슴 따뜻해진 이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죠. '어떤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따뜻한 말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건 정말 아름다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13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4

얼마 전 오랜만에 갤러리를 둘러보았다. 갤러리에는 과거의 힘들었던 순간들과 즐거웠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 있다. 그중에서 내 눈에 들어온 한 장의 사진은 'Job으로 GO'라는 프로그램을 하던 당시의 사진이었다. 'Job으로 GO'는 노동 인권이 보장된 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적절한 수당을 받으며 직업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사진 속에 담긴 그날은 오랜만에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다. 작업장이 있는 삶디 뒤편으로는 작은 컴퓨터가 있는데 그곳에는 특이하게 생긴 구조물이 있다. 동그란 목재 테이블을 중심으로 목재 기둥들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다. 그 기둥 사이에 액자 같은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작업장 선생님이 그 좁은 액자 틀에 아슬아슬하게 누워있었다. 평소에도 선생님은 이상한 행동을 보여서 대수롭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참 재미있고 놀라운 상황이었다. 그때, 청소하고 계시던 버리가 선생님을 보고 다가왔다. 누워있지 말라고 철제로 된 액자 틀을 집게로 툭툭 치신 것이다. 그러자 선생님은 깜짝 놀라 바로 일어나셨다. 평소에는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주시는 어른 미가득한 분이신데, 그 순간은 부모님 몰래 장난치다 딱 걸린 것 같은 말썽꾸러기 아들내미 같았다. 놀 때는 당황스러운 면이 도드라지는 선생님을

6

보고 있으면 그 양면성이 너무 재밌다. 이날이 아니어도 'JOB으로 GO'를 하던 시절은 항상 즐거웠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편안하며 행복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만큼 행복하지 않아서 사진을 보며 그때를 그리워할 때가 있다. 과거를 그리워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얼마 전에 해리포터 팬픽을 읽었다. 그 팬픽의 제목은 'Black Diary'

13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4

보고 있으면 그 양면성이 너무 재밌다. 이날이 아니어도 'JOB으로 GO'를 하던 시절은 항상 즐거웠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편안하며 행복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만큼 행복하지 않아서 사진을 보며 그때를 그리워할 때가 있다. 과거를 그리워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얼마 전에 해리포터 팬픽을 읽었다. 그 팬픽의 제목은 'Black Diary'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주인공 헤리의 대부인 시리우스 블랙이 감옥에 갇힌 이후부터 죽기 전까지 그가 쓴 일기이다. 그 일기는 대부분 시리우스가 자신의 친구인 제임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일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임스는 이미 죽었다. 그런데도 시리우스는 여전히 제임스를 찾았다. 친구가 죽었다는 절망에 사로잡혀 과거를 그리워하다 결국 과거에 갇혀 산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시리우스처럼 과거를 그리워한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과거는 지나갔고, 그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기억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왜곡된다. 기억이 왜곡될수록 사람은 그 과거 속에 갇혀 살게 된다.

리

나는 이미 수십 번 과거에 갇혀 살았었다. 사진들을 보면 다시 과거에 갇혀버릴까 두렵다. 시리우스처럼 지금의 행복을 놓치고 과거에 갇혀, 불행하게 살까 봐 두렵다.

7

1324온라인에세이클럽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리

8



루나

작가로도, 사람으로도 아직 자라는 중입니다.

세상의 모든 곳을 비추기에는 턱없이 작은 달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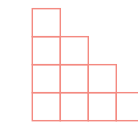
그래서 열심히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돌아 보면

언젠가는 모든 곳에 빛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달은 지구로부터 고개를 돌리지 않잖아요.

채소 수프, 베이킹소다 맛 케이크



1824문리안에게이름된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루나

어느 날 꿈을 꾸적이 있다. 동생이 차를 운전했다. 할머니
 댁에 급히 갈 일이 있었고, 집에는 우리 둘뿐이어서였다.
 멀쩡하게 도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아틀라스산맥처럼 생긴
 곳에 진입했다. 도로의 커브가 심하고 옆은 낭떠러지였다.
 한순간에 급커브 구간에 다다랐다. 그런데 동생은 핸들을 돌릴
 생각도 하지 않고 발밑에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차는
 낭떠러지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나는
 기겁하며 운전석으로 손을 뻗었다. 급히 핸들을 잡고 돌렸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우리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잠에서 깬다. 아마 꿈속의 나와 동생은 죽었을
 것이다. 단순한 개꿈이었지만 어느 정도 현실이 반영된
 꿈이었다.
 나와 두 살 차이 나는 동생은 엉뚱한 데다가 어딘가 나사가
 빠져있다. 꿈에서처럼 운전을 하다가 탄짓을 한다 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다. 사고도 많이 칠 것 같은데 일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한다. 만화에서 튀어나온 캐릭터 같다. 이런 동생의 성격을
 설명하기에 요리만큼 적절한 것도 없다.
 동생은 음식 만드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넉넉하게 만들면
 내 몫도 준다. 동생이 만들어준 음식은 무난하게 맛있다.
 하지만 요리를 하는 과정은 상당히 당황스럽다. 어떻게 멀쩡한
 음식이 나올 수 있을지 경이로울 정도이다. 작년 여름 방학의
 일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엄마와 아빠가 모두 출근하여

1824문리안에게이름된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루나

우리끼리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부엌으로 가보니
 동생이 팬에 참기름과 각종 채소를 볶고 있었다.
 오이, 파프리카, 토마토, 버섯, 파, 당근이 맛있는 냄새를 내며
 익어갔다. 다 만들면 나한테도 주겠다고 했다. 몇 분 후,
 동생이 팬에 우유를 부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가만히 있었다. 얻어먹는 처지에서 잔소리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동생은 다 만들어진 수프를 한 그릇 주었다.
 비주얼은 마치 적조 현상이 심하게 일어난 바다 같았다.
 나는 눈을 딱 감고 한 숟가락을 먹었다. 어이없게도 맛있었다.
 로제 파스타를 수프로 만든 느낌이었다. 나는 암전히 그릇을
 비웠다.
 “맛있다! 여기에 뭐 넣었어?”
 “음…… 토마토 파스타 소스랑 피자 치즈, 케첩이랑 마요네즈.”
 헛웃음이 나왔다. 저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 생각을 하다니.
 수프가 끝이 아니었다. 동생은 냉동 닭갈비를 얼음 상태
 그대로 요리하거나, 감자의 수분을 제거하지 않고 감자튀김을
 만드는 등, 온갖 시행을 선보였다. 그런데도 닭갈비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요리되었고, 감자튀김은 바삭했다. 동생을
 보면 멀쩡한 도로를 놓아두고 험한 길로 달리는 운전자 같다.
 목적지에는 제대로 도착하지만, 그 과정이 불안정하고 위험해
 보이는 운전자. 물론 교통사고가 나는 것처럼 동생의 요리도
 실패할 때가 있다.

1824문리안에게이름된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루나

가장 큰 실패는 딸기잼을 넣은 케이크였다. 케이크의 모습도,
 요리 과정도 평범했다. 다만 맛이 이상했다. 가루야 맛이 났다.
 베이킹파우더 대신 베이킹소다를 넣은 것이었다. 오렌지
 케이크에는 오렌지 주스를 너무 많이 넣는 바람에 흐물거렸고,
 박력분을 너무 많이 넣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케이크도
 있었다. 동생은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흐물거리는
 케이크와 단단한 케이크를 모두 먹어 치우고, 다음에는 무얼
 만들지 생각했다.
 나는 동생의 이런 모습이 좋다. 상식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도하는 모습이.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실패를 딛고 만들어낸 멋진 결과물이. 이 모습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때 동생의 괴상한 방법이 큰
 실패로 이어질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하나도 걱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동생이 하는 행동이 재미있고 귀엽다. 살면서
 할 실패라고 해보았자 베이킹소다 맛 케이크보다 더할까.
 똑같이 실패할 바에는 더 웃기고 엉뚱한 방법으로 실패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신나게 웃을 수 있도록.
 어쨌면 내가 꾸었던 꿈속에서, 우리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동생은 아마 추락에서 우리를 구해줄 마법의 물건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휘황찬란한
 운전실력을 발휘하여 상처 하나 없이 착지한 다음, 할머니
 댁으로 향했을 것이다. 차가 떠나가도록 갈갈대면서.

1824문리안에게이름된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루나

아빠와 개구리 고기



1824문리안에게이름된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루나

아빠는 개구리를 먹은 적이 있다. 심지어 꽤 즐겨 먹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막내 고모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개구리를, 그 물경하고 활동적인
 양서류를 아빠가 먹었다니. 고모는 아연실색한 내 표정을 못
 본 척 개구리 먹은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어린 아빠는
 맛있다며 고모에게 개구리 뒷다리를 주었지만, 고모는 먹지
 않았다. 어린 고모에게는 개구리 고기가 영 꺼림칙했던
 모양이었다. 아빠는 계속 개구리를 권했고 고모는 타협점을
 찾았다.
 “여기 개구리 무늬가 너무 징그러워서 못 먹겠어. 오빠가
 껌질 벗겨서 주면 안 돼?”
 아빠는 그 말에 얼룩덜룩한 개구리 껌질을 열심히 벗겼다.
 껌질이 두꺼웠는지 살코기는 엄지손톱 만큼만 남았고, 아빠는
 그것을 고모에게 주었다.
 “무슨 맛이었어요?”
 “응, 닭고기 맛이 났어.”
 개구리를 먹던 아이는 어른이 되어 아빠가 되었고,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정확히는 육지 고기만 먹지 않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이 되었다. 가족의 배설물에서 메탄이 나오고
 그 메탄이 온실효과를 일으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고기를 끊었다. 두 해가 지나고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 가서 그렇지. 병원에서 퇴원한 뒤

1824문리안에게이름된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루나

아빠는 다시 고기를 먹었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채식하는 건 좋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도 여겼다. 그로부터 여섯 해가 지난
 후, 아빠는 다시 채식을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채식을 떼어놓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잘 알아보고 할 거야.”
 다시 병원 신세를 지기 싫었던 아빠는 비건 식품과 요리법을
 열심히 찾아보았다. 얼마 전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건
 만두를 대량 구입하기도 했다. 비건 라면 구별법을 알려주는가
 하면, 면두부 파스타를 만들어주었다. 식탁에 고기가 줄었다.
 우리 가족은 고기를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았고, 아빠가 만든
 음식이 워낙 맛있었기 때문에 행복하기만 했다. 엄마도
 다큐멘터리 하나를 시청한 후, 채식을 지향하게 되었다.
 대장에 사는 균들에 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균들은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먹고 활동한다는 내용이였다.
 “그런데 먹을 게 없으면 장 내부를 공격한다. 무서워서 채소
 많이 먹려고.”
 그즈음 나도 기후 위기와 채식, 그리고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기후 위기에 관한 강의를 듣고,
 보선 작가의 [나의 비거니즘 만화]를 읽은 이후였다. 덤으로
 가족들이 길러지는 축사가 얼마나 더럽고 좁은지 알게 되었다.
 나는 엄마와 아빠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1824문리안에게이름된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루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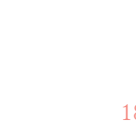
“나도 채식할까?”
 “안 돼, 너희들은 아직 성장기라서 고기 먹어야 해.”
 건강한 채식주의자가 되는 법은 다 알려주고, 입에는 고기를
 넣어주다니. 이토록 비효율적일 수가.
 ‘성장기만 끝나면 바로 고기 끊어야지.’
 나는 투덜거리면서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 그야
 맛있었으니까. 점점 줄어드는 숲과 소에게서 나오는 메탄가스,
 도살장으로 실려 가며 눈물을 흘리는 돼지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당장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고기가 더 가깝고
 중요하게 느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채식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문득 아빠가 먹던 개구리 고기 생각이 났다. 세상의
 고기가 모두 사라지고 개구리만 남는다면, 길거리에 있는
 생물을 잡아 직접 솜통을 끓고 요리해야 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생명을 끊는 고통까지 짊어 삼키는 일은
 내 비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 이제부터 고기가 모두 개구리라고 생각해보자. 내가
 직접 도축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아빠는, 개구리를 과자 집어 먹듯 먹은 아빠는, 고기를
 어떻게 먹지 않고 있는 걸까.
 “응, 아빠는 고기를 원래 안 좋아했어.”
 “거짓말한다. 아빠 닭고기 엄청나게 좋아했어.”
 그건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다.

1824문리안에게이름된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루나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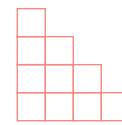


1824문리안에게이름된 '아,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루나

가족 여행



1824 온라인 에세이 플랫폼 '이,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루나

1

여행이라는 단어는 불안정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한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낯선 풍경과 생경한 사람들을 만나고, 익숙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훌쩍 떠나는 자유로움. 나 혼자 떠나는 차분한 여행을 한 번쯤은 떠나고 싶다. 내 여행은 매번 가족과 함께였기 때문에. 다섯 명이 떠나는 여행은 자유롭지는 않아도 재미있었다. 그러나 평온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 다섯 명을 각자 떼어놓고 보면 사회의 진실한 일원이지만 한곳에 있으면, 더군다나 생소한 장소와 환경에 놓이면, 기필코 일을 내고 만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소소한 일화를 풀도록 하겠다.

때는 오월 초, 집에서 한 시간 거리의 캠핑장이었다. 오랜만의 캠핑이라 신난 우리는 오솔길을 산책하고 음악을 듣고 의자에 누워 폭 쉬었다. 해가 맑고 산들바람이 불었다. 적당히 따뜻하고 나뭇잎이 살랑거렸다. 나는 이 행복이 해처럼 영원할 줄 알았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해와 함께 저물고 말았다. 온도가 빠르게 내려갔고 산들바람은 차갑고 거세어졌다. 옷 가방에는 얇은 긴소매와 반소매 옷밖에 없었다. 초여름 밤에 칼바람이 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엄마와 아빠, 나는 동생들을 텐트에 넣어놓고 대책 회의를 시작했다. 얼마 안 되는 긴 팔 껌입기, 내일 아침에 시장에 가서 옷 사기, 모닥불에 모여앉기, 깡으로 버티기 등등. 점점 의견의 질이 떨어질 때쯤 엄마가 말했다.

1824 온라인 에세이 플랫폼 '이,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루나

2

“집에 다녀올까?” 나는 엄마가 농담하는 줄 알고 웃었다. “엄마 가면 내가 따라갈게.”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와 나는 토끼 같은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차에 타고 있었다. 쓸데없는 여름옷을 신고 아빠가 챙겨준 호두 타르트와 고구마를 들었다. 나는 동생들에게 물었다. “너희도 같이 갈래?” 동생들은 질색하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심술이었는지 둘째가 말했다. “길 잘못 들어버려라.” 당시 시각은 9시 30분. 계획은 이랬다. 한 시간 동안 집에 달려가 두꺼운 옷을 챙긴 후 다음 날 아침 일찍 캠핑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텐트 안은 따뜻하니 아빠와 동생들이 밤을 나기에 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호기롭게 고속도로를 달려갔다. 절반 정도 갔을까, 왼쪽 깜빡이가 저절로 켜졌다. “이게 왜 이런데.” 깜빡이를 꺼도 계속 켜졌다. 초록색 화살표가 끊임없이 똑딱거렸다.

“집에 가면 차도 수리하고 와야겠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달렸다. 오래지 않아 차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라이터를 켜려고 애쓰는 듯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다. 엄마와 나는 슬슬 무서워지기

1824 온라인 에세이 플랫폼 '이,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루나

3

시작했다. “이거 괜찮은 거 맞아?” “몰라, 폭발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름 냄새가 났다. 기절할 것 같았다. 기름 냄새가 무슨 의미였더라, 오래전에 본 잡지식 사전의 내용이 핑핑 돌았다. 달달한 냄새는 냉각수 문제... 귀퉁한 냄새는 에어컨 문제... 차가 휘청하고 흔들렸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차 손잡이를 붙잡으며 생각했다. ‘이제 타이어도 말쑥이네, 차가 정말 부서지려나 보다.’ 알고 보니 엄마가 기름 냄새에 어지러워 핸들을 잘못 쥐은 것이었다. 하마터면 다른 차와 부딪힐 뻔했다. 엄마는 창문을 열고 버티며 겨우겨우 차를 세웠다. 고속도로 옆 침터였다. 꽃집과 도자기 가게도 있었다. 차를 멈추기가 무섭게 엄마가 문을 열었다. “빨리 내려, 빨리.” “왜? 왜 그래?” “운전석에서 연기가 나고 있더라. 틈새로 주황색 불꽃도 보이고.”

엄마는 차가 폭발할지도 모른다면 멀쩡이 떨어져 있었다. 나도 엄마 옆에 딱 붙어섰다. 전화로 아빠에게 상황을 알리고 건인차를 불렀다. 할 수 있는 요청을 다 하자 주변을 돌아볼 정신이 생겼다. 맵소사, 스릴러 영화에서 꼭 이런 장면이

1824 온라인 에세이 플랫폼 '이,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루나

4

나오던데. 도자기 인형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화분 사이에 놓인 비료 포대가 사람이 웅크린 모습처럼 보였다. 향아리 더미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코앞에서 차들이 쉿쉿 지나갔다. 누군가가 조수석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다. 누구에게 지르는 소리인지, 뭐라고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공포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식칼을 든 살인마와 봉고차 납치, 장기매매 등등 뉴스에서 보았던 온갖 범죄가 떠올랐다. 평소 같았으면 맞서 싸우는 상상을 했을 텐데, 싸우기는 무슨, 살인마를 만나기도 전에 얼어 죽을 것 같았다. 캠핑장을 떠나기 전, 입고 있던 후드티를 동생에게 벗어준 게 후회되었다. 대단한 영웅 심리라도 있었던 걸까. 반소매 티셔츠는 추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입안에 든 호두 타르트가 무슨 맛이 났는지 기억도 안 난다. 엄마와 나는 파들파들 떨면서 건인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1분마다 수명이 1년씩 깎이는 기분이었다. 마침내 건인차의 불빛이 보였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우리의 시련은 끝이 아니었다. 건인차 기사님이 나주 서비스 센터가 가깝다며 나주로 가자고 하셨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우리 집은 광주에 있는데, 나주에서 내리면 집에는 어떻게 가지? 엄마는 기겁하며 광주 남구에 있는 서비스 센터가 가달라고 했다. 그러자 기사님은 광산구에 있는 서비스 센터가 더 가깝다며 거기로 가자고 하셨다.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1824 온라인 에세이 플랫폼 '이,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루나

5

얼굴에 답답할 때 짓는 표정이 떠올랐다. 우리는 건인차 조수석에 탔다. 광주로 가는 동안 엄마가 유난히 굳어있었다. 엄마가 나중에 말해주었는데 건인차 기사님은 졸음운전을 하고 계셨다. 정말 죽을 뻔했다. 건인차는 결국 광산구가 아닌 남구 서비스 센터에 우리를 내려주었다. 남구가 더 가까웠던 모양이었다. 우리로서는 집에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잘된 일이었다. 집에 들어간 건 자정이 넘어서였다. 엄마와 나는 샤워를 하고 수면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다. 캠핑장을 떠난 지 백 년은 지난 기분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엄마 혼자 집에 보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연기가 나는 차 안에서, 춥고 어두운 도로변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운전자 옆에서, 혼자 있었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공포를 느끼는데. 자기 직전, 여행은 절대로 혼자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추운 곳에서 얇은 옷만 가지고 있을 때 누구와 타개책을 찾을 것이며, 어둡고 낯선 곳에 고립되었을 때 누구와 함께 서로를 격려해 줄 것인가. 그러한 사건을 겪으며 성장하는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나는 곁에 누군가가 있기를 바란다. 순간의 두려움과 망설임을 나눌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와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나 홀로 떠나는 여행의 낭만은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그때는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멀리멀리,

1824 온라인 에세이 플랫폼 '이,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루나

6

아주 오래 떠나고 싶다. 두렵고 어려운 일에 이골이 날 정도로 오래. 다음 날 엄마와 나는 정비소에서 차 수리를 받고 따뜻한 옷을 챙겼다. 캠핑장으로 돌아가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길을 잘못 들어 몇 분이 더 걸리긴 했지만. 집에 들어간 건 자정이 넘어서였다. 엄마와 나는 샤워를 하고 수면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다. 캠핑장을 떠난 지 백 년은 지난 기분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엄마 혼자 집에 보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연기가 나는 차 안에서, 춥고 어두운 도로변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운전자 옆에서, 혼자 있었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공포를 느끼는데. 자기 직전, 여행은 절대로 혼자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추운 곳에서 얇은 옷만 가지고 있을 때 누구와 타개책을 찾을 것이며, 어둡고 낯선 곳에 고립되었을 때 누구와 함께 서로를 격려해 줄 것인가. 그러한 사건을 겪으며 성장하는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나는 곁에 누군가가 있기를 바란다. 순간의 두려움과 망설임을 나눌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와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나 홀로 떠나는 여행의 낭만은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그때는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멀리멀리,

1824 온라인 에세이 플랫폼 '이,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루나

7

네 살 아기의 영상

엄마의 카카오토티에서 귀중한 영상을 건졌다. 막냇동생이 네 살 때 찍은 비디오편이었다. 어린이집에서 소꿉놀이하는 동생은 토마토 모형을 썰었고, 장난감 토스터를 가지고 놀았다. 비디오에는 그 당시 동생의 귀여움이 몽땅 담겨 있었다. 무언가를 부정할 때 고개를 저으며 “누누누”라고 말하는 버릇이나 빵을 굽이 “빵이”라고 친근하게 말하는 버릇 등 지금은 사라진 동생의 모습들이 있었다. 불이 아기 돼지 마냥 오동통했고, 앵글 밖의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이 새까맣고 투명했다.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였다. 나는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 영상을 꺼내 본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간단하다. 40초 동안 영상을 보면 되는 일이니. 귀여운 아기였던 막냇동생은 올해 열 살이 되었다. 열 살이 어떤 나이인가 하면, 이익을 찾아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나이이다. 애써 계획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 일을 실행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울거나, 생각나는 말을 있는 대로 집어 던진다.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 구석에서 몸을 사리며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열 살의 공포정치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아홉 살 때는 안 그랬는데. 귀여운 아기였을 때가 좋았는데. 이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과거는 미화된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을 들여 지난날을 되짚어 보자. 아홉 살도

1824 온라인 에세이 플랫폼 '이,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루나

8

엄마의 카카오토티에서 귀중한 영상을 건졌다. 막냇동생이 네 살 때 찍은 비디오편이었다. 어린이집에서 소꿉놀이하는 동생은 토마토 모형을 썰었고, 장난감 토스터를 가지고 놀았다. 비디오에는 그 당시 동생의 귀여움이 몽땅 담겨 있었다. 무언가를 부정할 때 고개를 저으며 “누누누”라고 말하는 버릇이나 빵을 굽이 “빵이”라고 친근하게 말하는 버릇 등 지금은 사라진 동생의 모습들이 있었다. 불이 아기 돼지 마냥 오동통했고, 앵글 밖의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이 새까맣고 투명했다.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였다. 나는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 영상을 꺼내 본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간단하다. 40초 동안 영상을 보면 되는 일이니. 귀여운 아기였던 막냇동생은 올해 열 살이 되었다. 열 살이 어떤 나이인가 하면, 이익을 찾아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나이이다. 애써 계획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 일을 실행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울거나, 생각나는 말을 있는 대로 집어 던진다.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 구석에서 몸을 사리며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열 살의 공포정치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아홉 살 때는 안 그랬는데. 귀여운 아기였을 때가 좋았는데. 이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과거는 미화된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을 들여 지난날을 되짚어 보자. 아홉 살도

1824 온라인 에세이 플랫폼 '이,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루나

9

그다지 젊음은 나이는 아니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게임에 빠져서 “게임이 좋아, 누나가 좋아?” 라는 말에 한참 고민하다 “.....둘 다 좋아” 라고 말한 게 바로 작년이다. 돈가스에 카레 소스를 뿌렸다고 불같이 화를 내던 일을 벌써 잊은 건가. 분명 다음 해에는 열 살일 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예쁜 모습만 잘 편집되어서 머릿속에 남을 것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여, 아름다운 영상을 믿으면 안 된다. 열 살 막내는 오랜만에 만나는 누나와 형에게 달려와 안길 줄 아는 사랑스러운 동생이다. 그러면서 연애하고 싶다는 누나의 말에 “공부부터 하고 생각해.”라며 일침을 남기는 따끔한 사람이다. 엄마가 밋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모습도 있다. 이런 동생의 매 순간을 사랑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한순간만 선택하기에는 아깝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본다. 감쪽한 모습만 담긴 영상처럼 살아가기보다는 여러 면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귀여운 면모만을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에 목매지 않기를. 못된 사람에게 화도 내고 뚝대도 되지 않을 때는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소꿉놀이를 하던 아기를 잊지 않고 자라나기를. 내가 이것을 글로만 쓰는 이유는, 내 동생이 이미 그런 사람으로 자라서이다.

1824 온라인 에세이 플랫폼 '이, 있다' 004

편안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루나

10